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안동시 중구동 사례로 -

###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The Case of the District of Junggu-dong, Andong City

김용남, 홍형철, 권기창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문화산업연구소

Kim yong-nam, Hong Hyung Chul Kwon gi-Chang  
Research Center for Culture Industry, Dept. of Content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

#### 요약

본 연구는 안동시 중구동을 사례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은 관광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 축제이벤트,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개발, 환경정비가 있다.

### I. 서론

고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도시재생 방법도 다르게 전개 되고 있다. 대부분 도시들이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문화'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들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과 문화도시 조성사업등 문화적 유산을 살리면서 지역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것도 도시재생 방법이라고 하였다.[1] 안동은 오랜 역사문화도시로써 우수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도시이다. 이에 유사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하여 안동시 중구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역사문화자원

임지은은 유산이나 자원,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문화재와 해당지역의 유·무형의 모든 자원은 역사 문화자원으로 인식 된다고 하였다.[2]

김용근은 과거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은 향토문화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3]

#### 2.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도시 활동이 침체되어 있거나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의 기능을 재활성화 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4] 또한 문화적인 풍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 재생은 생활 환경의 연속성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 III. 사례분석

사례지 선정 기준은 세 도시 모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재생한 사례이며, 도심에 문화자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가나자와, 에딘버러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1. 사례분석

사례지	시사점
전주한옥마을	-특수한 지역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지구를 조성
가나자와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독자적인 시책을 펼치고 각종 시책에 적용할 조례 제정
에딘버러	-역사문화공간과 축제와 공간적 연계와 체류형 축제의 성격을 띠 -축제조직과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III. 지역 환경 분석

#### 1. 지역 여건 분석

안동시 중구동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역사 이전으로 원도심 쇠퇴 가속화 현상과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의해 안동시 중구동을 분석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안동시 구도심 지역 여건 분석

강점	약점
-전통문화도시, -문화의 역사성 보유 -다양한 문화자원	-적은 인구수 -전문 인력 부족 -잠시 스키는 관광객 -문화시설 부족
기회	위협
-우수한 접근성 -안동의 중심지 -역사적 요충지	-인구의 정체 및 감소 -비슷한 관광패턴 -교통여건의 개선 -역사, 문화, 사회적자산 활동 미흡

## 2. 역사문화자원 현황

안동시 구도심 역사문화자원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3. 안동시 중구동 역사문화자원

구분	내용
태사묘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삼태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재사
부신목	예전부터 안동부사 부임시 제를 올린 곳
법흥사지 칠층전탑	통일신라시대 칠층전탑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됨
임청각	우리나라 현존하는 살림집 중 가장 큰 규모로 500년 역사를 지님
차전놀이	고려태조왕건과 견훤의 전투에서 유래
뽕다리밟기	고려공민왕 안동 몽진시 노국공주에 마을부녀자들이 등을 내어 다리를 놓음에서 유래
고삼주	안동의 전통주, 왕건과 견훤의 전투에서 고삼주에 취한 견훤군에 왕건군이 대승함에 유래

## IV.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안동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현황을 보면 문화자원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되고 단발성 행사들이 많다. 또한 소규모 관광의 성향을 보이며 접근로 개설이 미비하다. 태사묘, 차전놀이 등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이 미흡하며 특히, 자원 연계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앞에서 본 사례분석과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지역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연결하기 위한 관광상품개발, 축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개발, 환경정비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구분	활용방안
환경정비	-전기통신 지중화 -간판정비 -쉼터조성
관광상품개발	-미니부신목만들기 -공민왕과 노국공주 캐릭터 커플도장 새기기 -고삼주 개발
축제이벤트	-여성민속한마당축제 -상여놀이 -차전놀이 -뽕다리밟기
체험프로그램	-차전놀이체험, 뽕다리밟기체험 -전통공예체험, 의복놀이체험 -고삼주만들기
스토리텔링	-미니부신목을 지니면 나쁜기운이 사라짐 -고삼주 마시면 승리 -법흥사지칠층전탑 돌면소원 성취 -공민왕과노국공주캐릭터 커플도장 새기면 사랑이 이루어짐
영상콘텐츠개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왕건과 견훤의 전투 -임청각의 역사

## V. 결론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재생, 활용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동시 중구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부자료의 한계와 추진체제와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보강 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이홍재, “일본과 영국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문화복지, 2002.
- [2] 임지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 김용근, “문화역사자원의 이용과 관리”, 도시문제 제43권, 2008.
- [4] 임서환, “충남도시재생 방향과 추진전략”, 열린충남 제40권, 2007.